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한류(韓流)란 무엇인가. 한국영화가 일...

높은 가치가 아래로 스며드는 현상이라고...

한류, 홍익문명의 확산을 위하여

나 탤런트의 얼굴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한국(한반도)에서 발원, 발신되고...

이때 전 지구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다 줄...

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또 우리민족의 제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가장 큰 빛은 가장 깊은 어둠속에서 나오는...

〈언론인〉

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방경기 활성화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7일 "지방건설업 등...

사실 지방의 체감경기는 최악의 상태다. 대기업이나 수도권 기업에 비해...

특히 지역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건설경기는 주저앉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관광 전남' 이미지 먹칠하는 바가지 상흔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남도내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에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바가지 상흔과 불친절, 화장실 및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부르는 게 값'인 숙박비가 원상의 대상이다. 아무리 성수기라지만 해수욕장의 하룻밤 민박요금에 14만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가족들과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는 관광객이 "이번 여행은 지금까지 다녀본 여행지 중에서 최악이었다"며

오고, 내수부진은 기업 경영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나 '대수도권'이니 하면서 역장이 무너진 지방 기업인들에게...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경기의 활성화 없이는 국가경제의 회복도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글을 올렸을까. 이쯤되면 '한철 장사'라고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있어 휴가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공해로 찌든 도시와 일상에서 벗어나...

전남도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피서지의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는 말만 앞세워선 안된다.

연가법 집행행위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지 않는 한 '관광 전남'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NGO 칼럼

나규동



지난 7월 31일 선거를 통해 제5대 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출범한지 10여년이 되는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 자치에 기여한 점은 많으나 전문성의 부족,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원과 견제 미흡, 교육외적인 일에...

제5대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을 모두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지방교육행정 집행자인 교육감의 직무수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현행의 학교운영위원회들의 간선제는 선거인단이 적은 수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을 알리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오갈 수 있고, 입후보자로서는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워 선거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둘째, 선거운동방법과 기간을 설정하여 후보자가 자신을 정당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위원 선거 10일 전에 등록을 하고 후보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있는 조건 발표회와 선관위에서 배포하는 후보자에 관

교육위원 선거를 돌아보며

행에 대한 지원과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져 교육의 자율성 확보는 물론 교원의 전문성 신장 그리고 특색 있는 광주교육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라라 믿음을 가져본다.

한 후보를 만으로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소상하게 알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은 입후보자들에게 대하여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첫째, 교육위원이나 교육감도 주민

한 후보를 만으로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소상하게 알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은 입후보자들에게 대하여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의 선거가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가장 교육적이고 모범적인 선거가 되어 교육을 사랑하는 이들의 촉세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장〉

흡연·금연 공간 제대로 구분안돼 비흡연자 피해봐서야

흡연 공간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음식점 등은 완전 금연이 이뤄지지 않고 흡연석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술집이나 노래방, PC방과 커피숍 등에서도 흡연석이 구분돼 있지만 실내에 담배 연기로 가득 찰 때가 많다.

할 수 없다. 같은 공간에서 금연석과 흡연석을 따로 분리해줘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

흡연석과 금연석을 마련해야 한다면 차라리 별실 등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전체를 금연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김희수·광주시 북구 용봉동

▲김희수·광주시 북구 용봉동



기린의 허니문

지난해 정말 어렵게 기린 한 쌍을 데려왔다. 마리당 5천만원 정도 들어간 비용은 문제가 아니다.

위나 큰 키(수컷 5m·암컷 3m) 때문에 수송하기 전부터 조마조마했다. 기린 수송 차량을 찾은 문제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기린 키보다 낮은 육교나 다리는 없는지, 행여 무슨 일이 나 생길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그런 기린이 들어온 지 1년이 넘었다. 너무 어린 것은 어려서, 나이가 먹은 것은 그것대로 적응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당시 4살인 수컷(말레린)과 2살인 암컷(아린)을 들여왔다.

일반적으로 암컷 기린이 3살이면 임신이 가능한 연령이다. 하지만 가족과 달리 야생 동물들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 짝이 마음에 안 들거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남의 떡'보듯 생식 활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일이 많다.

기린들도 마찬가지였다. 억지로 전용 사육장에 집어 넣으면서도 항상 의문이



생겼는데, 문득 본격적 사랑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1년 넘게 얼굴을 익히면서 잠이 들었을까.

암컷은 슬며시 달아나고, 수컷은 쫓아다니다가 기를 쓰며 올라간다. 그러길 여러차례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운전중 핸드폰 사용자제 스스로 지키는 시민 의식 필요

광주시 도심을 지나다보면 차량 운전자들이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본다.

이들 운전자들의 경우 대개 주변 차량 흐름과 달리 속도를 늦춰 운행하다가 경적을 울리는 뒤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기도 한다.

휴대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핸드프리를 설치했거나 내장된 승용차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탓일

까. 핸드 프리가 설치됐는데도 직접 통화하는 운전자들을 보기도 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자신의 안전이나 편리함보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승연·광주시 북구 문흥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이승엽(30)이 지난 1일 수립한 한일 통산 400호 홈런이란 대기록은 한국인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쾌거였다.

한때 솟구치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이날 홈런을 내준 한신 타이거즈의 투수 이가와 게이(27)였다. 그는 홈런 두 방을 맞고 이승엽에게 경이로운 기록을 헌납한 뒤 분을 삭이지 못해 주먹으로 벽을 쳤다. 명색이 일본 센트럴리그를 대표하는 좌투수라는 자부심에 가득 찬 이가와로선 자국이나 미국도 아닌 한남(?) 한국에서 온 이승엽의 위대함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승엽이 지난 2003년 10월 2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시즈마리 경기에서 지난 64년 '전설'의 오 사다하루(왕정치가)가 세웠던 55계를 넘어, 아시아 최다인 56개의 홈런을 날렸을 때도 일본 언론의 속내는 결코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이승엽의 지난 32개의 홈런

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도 일본 언론들은 지난 2002시즌 요미우리 4번 타자로 홈런 50개를 쏟아낸 뒤 일본의 영웅으로 의기양양하게 사담도 있었다. 이날 홈런을 내준 한신 타이거즈의 투수 이가와 게이(27)였다.

그는 홈런 두 방을 맞고 이승엽에게 경이로운 기록을 헌납한 뒤 분을 삭이지 못해 주먹으로 벽을 쳤다. 명색이 일본 센트럴리그를 대표하는 좌투수라는 자부심에 가득 찬 이가와로선 자국이나 미국도 아닌 한남(?) 한국에서 온 이승엽의 위대함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승엽은 늘 부드럽고 겸손하다. 그런 그를 일본 기자들은 한국영화에 빗대어 '천절환 승엽씨'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승엽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하다.

2004년 일본으로 막 건너가 '한국야구를 우습게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승부욕을 보인 그의 뜻이 이제 화려하게 실현되고 있다. '겸손한 승엽씨'는 가까운 장래에 틀림없이 일본 야구를 평정하고 미국에서도 한국인의 기개를 떨칠 것이다.

*/이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hh@

겸손한 승엽씨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